

사설

북남선언들의 가치따라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실현하자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크나큰 감회와 자주통일에 대한 굳센 투지를 암고 혁사적인 10·4 선언발표 3돐을 맞이하고 있다.

10월 4일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사에 또 하나의 리정표를 아로새긴 뜻깊은 날이다. 3년전 10월 평양에서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되고 북남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된 것은 6. 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확대발전시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한 특기할 사변이었다. 10·4 선언이 제작됨으로써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현실적기초가 마련되었으며 우리 민족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뛰어나게 할 투쟁의 기치를 받아안게 되었다.

10·4 선언은 조국통일위업의 위력한 무기인 6. 15 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이다. 10·4 선언에는 우리 민족끼리 리념을 구현하여 화해와 단합,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며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되고 번영하는 광명한 미래를 앞당겨오기 위한 원칙과 방도들이 명확히 밝혀져 있다.

6. 15 공동선언의 기치높이 10·4 선언을 펼쳐져 구현해나가면 우리 민족은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머지않아 자주통일위업을 영예롭게 실현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통일도상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에 명백한 해답을 주어 조국통일과 공동번영에 대한 겨레의 네원을 빛나게 성취할 수 있게 한다는데 10·4 선언이 가지는 역사적의의가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10·4 선언체택 후 그것을 구현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적극 투쟁하였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어렵고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민족의 지향과 공동의 리익을 앞에 놓고 아량있고 대범한 조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하며 통일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북남선언들을 성실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는 과국으로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6. 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하고 《비핵, 개방, 3 000》과 같은 대결정책을 추구하면서 외세와의 경쟁으로 북남관계의 진전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다. 이를 하여 10·4 선언리행을 위한 길에 차단봉이 내리워지고 나중에는 《6. 15의 육동자》로 불리우던 금강산관광마저 파괴되었다. 남조선당국은 지난 3년간 그 무슨 《원칙고수》와 《세대로 된 남북관계》를 윤운하여 북남관계를 6. 15 이전으로 후퇴시켰으며 최근에는 모략적인 학살침몰사건을 구실로 외세와 함께 북침전쟁의 길로 공공연히 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애국애족의 선군정체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조국통일에 대한 숭고한 뜻과 혁사적 명감을 지니고 계시는 6. 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펼쳐져 리행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해야 할 무겁고도 영광에운 업무이 나서고 있다.

조국의 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우리 민족이 들고나가야 할 가치는 6. 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다.

온 민족은 북남선언들을 적극 지원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대선반통일도전이 우수로운 속에서도 겨레의 통일지향은 도도히 강토에 끌어이끌고 있으며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합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년간 조국통일운동의 현실은 6. 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존중과 리행에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통일,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으며 온 민족의 단합된 투쟁으로만 자주통일시대의 전진을 추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6. 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 가지는 역사적의의가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10·4 선언체택 이후 북남사이에 진행되던 종례회담을 비롯한 여러 갈래의 대화와 협상, 다방면적인 협력사업들을 남조선에서 보수 《정권》의 출현으로 좌절을 겪고 북남관계는 과국으로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6. 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리행을 가로막고 북남관계를 풍자박산번 미국과 남조선보수당국의 반통일대결책들을 반대하여 전쟁과 평화번영의 불길을 요구하는 대중적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10·4 선언발표 3돐을 맞는 지금 우리 겨레의 가슴마다에는 절세의 위인 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신 한없는 궁지와 자부심이 차넘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애국애족의 선군정체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조국통일에 대한 숭고한 뜻과 혁사적 명감을 지니고 계시는 6. 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펼쳐져 리행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해야 할 무겁고도 영광에운 업무이 나서고 있다.

조국의 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우리 민족이 들고나가야 할 가치는 6. 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다.

온 민족은 북남선언들을 적극 지원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대선반통일도전이 우수로운 속에서도 겨레의 통일지향은 도도히 강토에 끌어이끌고 있으며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합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년간 조국통일운동의 현실은 6. 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존중과 리행에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통일,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으며 온 민족의 단합된 투쟁으로만 자주통일시대의 전진을 추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6. 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 가지는 역사적의의가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10·4 선언이 밝혀준 길을 따라 역세계 싸워나아감으로써 이 땅우에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만드시 일떠세우고야 말것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적 단체를 이루하고 반통일세력의 온갖 학들을 짓부시며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기어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오늘 전체 조선민족앞에는 안팎의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물리치며 혁사적인 책동을 벌여야 한다.

북남관계 문제, 나라의 통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도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는데 있다.

조국의 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우리 민족이 들고나가야 할 가치는 6. 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다.

온 민족은 북남선언들을 적극 지원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대선반통일도전이 우수로운 속에서도 겨레의 통일지향은 도도히 강토에 끌어이끌고 있으며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합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년간 조국통일운동의 현실은 6. 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존중과 리행에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통일,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으며 온 민족의 단합된 투쟁으로만 자주통일시대의 전진을 추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6. 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 가지는 역사적의의가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10·4 선언이다.

고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실현하려는 우리의 맹장은 일관하다.

우리

는

앞으로도

6. 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며 공동선언에 배치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다.

남조선당국이 북남

선언들을

부정하면서 대결정정책을 계속 추구한다면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개선될 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반통일적인

《대북정책》을 철회하

야 하며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관계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

계개선과 조국통일의 들판구를 열어나가야 한다.

6. 5년간이나 지속되고 있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끌어내기 위한 만민자주화투쟁을

파악하고 전개하는 것은 혈의의 절박한 요구이다.

북과 남의 단합과 통일을 반대하면서 전조선에 대한 지배여야는 미국의 음흉한 기도를 단호히 차단하여야 한다.

침략과 전쟁의 근원인 남조선

강점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키기 위

한 전민족적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온 민족은 미제와 남조선호전평화

의 날로 엄중해지는 새 전쟁도발책

동을 저지파란시키고 평화를 수호

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한 사람같이 펼쳐나서야 한다.

민족의 단합과 협력을 적극 실현

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의 단합은 조국통일의

근본분보이다.

해내외의 각 정당,

단체들과 인민들은 사상과 제도,

정견과 주의주장의 차이를 뛰어넘

여 10·4 선언을 부정하고 그 리행을 훼방하는 그 어떤 행동도 용납될 수 없다.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이며 민족적의 투이다.

6. 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실현하자면

6. 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다.

그

는

우리

는

6. 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다.

그

는

우리

는

6. 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다.

그

는

우리

는

6. 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다.

그

는

우리

는

6. 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다.

그

는

우리

는

6. 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다.

그

는

우리

는

6. 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다.

그

는

우리

는

6. 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다.

그

는

우리

는

6. 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다.

그

는

우리

는

6. 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다.

그

는

우리

는

6. 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다.

그

는

우리

는

6. 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다.

그

는

한 소년의 소생에 바쳐진 뜨거운 사랑과 정성

북창군인민병원과의 천시제 2인민병원 의료일군들에 대한 이야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시였다.

『사회인 모든 성원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화복한 대가정을 이루고 다음과 같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핵심입니다.』

선군시대 사랑과 정성의 새 전설이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고 있다.

얼마전 전신 3.6%의 3도 화상을 입고 사경에 처했던 한 평범한 노동자의 나어린 아들이 당시의 품속에서 차라리 선군시대 보건일군들의 인간

불같은 인간애는

주원이는 이 경이 좋았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땀흘려 일하는 아버지를 찾아가고 밭전소로 오가는 길을 그는 늘 나래동чин을 탈리군하였다.

몇 해 전 그날에도 그는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 공부를 마치고는 어머니가 꾸려준 음식보자기를 들고 아버지를 찾았다.

그때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의 등을 두드리며 말하였다.

『우리 주원이가 또 이동봉사를 나왔구나. 정말 용량!』

얼마후 그는 여느때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그가 발전소구내를 벗어날 무렵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장난기세찬 주원이가 그만 다가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들어섰던 것이다.

순식간에 수백°C가 되는 뜨거운 증기가 어린 그의 몸을 휩쌌다.

주원이는 외마디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때는 2007년 10월 15일 저녁 8시 30분경이었다.

북창군인민병원으로 급히 실려온 그의 머리맡에 놓인 명판서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김주원, 남자, 1997년 8월 28일생.

아버지; 북창화력발전련합

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지극한 정성이 의해 기적적으로 소생하여 대지를 활보할 수 있게 되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인간 사랑의 회원, 미덕의 회원인 우리 제도에서만 끊임없이 있는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사회주의 애الم로 몇 시각 허비할 때도 있었지만 병원의료집단은 실망하지 않고 소생전투를 꾸준히 벌려 나갔다.

욕창을 막기 위하여 의사, 간호원 모두가 환자를 반복하고 진진밥을 지새웠고 환자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치성껏 마련한 갖가지 보약과 영양식품을 그의 입에 넣어주었다. 환자의 소생에 좋은 약재를 구하기 위해 원장과 초급당비서를 비롯한 병원군들은 저녁길, 새벽길을 가리지 않았다.

드디어 환자는 위험계선에서 벗어나 나날이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하였다.

긴급하게 열린 의사협의회장 소에는 무거운 침묵이 떠들고 있었다.

잠시 후 그것을 깨치며 원장 김명길동무가 말하였다.

『환자는 우리 장군님께서 아끼시는 노동계급, 발전소로동자의 아들입니다.』

다른 말은 더 필요없었다. 협의회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속에 김명길동무의 목소리가 다시 장내에 울렸다.

『이제부터 치료전투를 조직하겠습니다!』

즉시 외파의 고인송, 박원철동무와 간호원 박금향, 박준우 등 무도들로 치료조가 무어쳤다.

이어 어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긴장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환자의 하반신전체는 형체를 전혀 알아볼 수 없게 통통 부어 올라있었다. 의사인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소년은 심한 고열로 계속 신음을 하였다.

치료조성원들은 물론 파장장의원, 의사 윤일, 김영순동무를 비롯한 외파의 전체 의료군들이 24시간 교대적으로

환자의 결을 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수많은 약물과 피가 환자의 몸으로 흘러들었다. 이과정에 환자가 자주 의식을 잃고 맥박과 혈압이 거의 평상태로 돌아온다. 그들이 병원에서 들었던 말이 떠나지 않았다.

여보, 인차 피부이식을 해야 한다는데 어찌면 좋을까요? 우리 사회에 남의 아픔 한 번씩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된 병창의 수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루어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들 속에는 환자가 정의 이웃들과 발전소사람들, 군안의 교원들과 보건일군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려면 수백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한데 묶여 있다. 수술이 진행되는 날이면 인산인해를 이룬 수술장에서 자기 피부를 먼저 떼내달라고 하는 사람들과 질서를 유지하는 간호원들간에 가슴뜨거운 싱경이 절연에 이어져 군하였다. 수술대에 남아 그 수는 얼마 되지 않았다.

안타까움속에 범을 보낸 그들로부터는 자기들의 피부를 넘겨고당기는 바람에 출입문유리가 두번씩이나 깨지는 일도 벌어졌다.

사랑과 헌신, 자기희생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수놓아지는 그와 같은 날속에 기본은 마침내 수술방법을 대답해 받아들여 주원이의 원족다리를 펴는 성공했던 것이다. 이것은 주원이가 두발로 다시 대지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귀중한 첫걸음으로 되었다.

한쪽 무릎관절을 펴기 위해 치료를 했던 후 치료집단 앞에는 나머지 무릎관절을 펴는 것과 동시에 수술자리에 피부를 이식하여 하는 새로운 과정이 나섰다.

주원이에 대한 소생치료의 북창군인민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미 전부로 알고 있는 병원에서는 2차수술날짜를 수술성원들외에는 그 누구도 모르게 국비에 불었다. 그 러나 수술당일 날 병원군들과 수술성원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침까지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혼연히 자기 말은 일을 하고 있던 의사, 간호원들이 수술시간이 다가오자 경쟁이라도 하듯 도느도록 수술실앞에 줄지어 서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그들을 엄한 눈길로 바라보는 원장

김창철, 리순영부부는 밤이 깊었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뇌리에서는 낮에 병원에서 들었던 말이 떠나지 않았다.

여보, 인차 피부이식을 해야 한다는데 어찌면 좋을까요? 우리 사회에 남의 아픔 한 번씩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된 병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또다시 온 복장창에 피쳤다. 피부이식수술이 한주일에 한 번씩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된 병창의 수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루어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들 속에는 환자가 정의 이웃들과 발전소사람들, 군안의 교원들과 보건일군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려면 수백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한데 묶여 있다. 수술이 진행되는 날이면 인산인해를 이룬

그날 밤 그들은 오래도록 이 일군인 박금복동무가 이렇게 말하였다.

『원장동지, 앞으로도 우리 몰래 주원이의 피부이식 수술을 하는 건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날 2차수술에서 박금복, 서순철, 방영일, 정철규동무를 비롯한 수십명의 병원종업원들이 주원이를 위해 자기의 피부를 바쳤다. 발전소로동자의 아들인 주원이를 찾아와 수업을 진행한 승리산중학교 교원들과 우리 주원이의 동무라고 하면서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의 일군들도 수술장으로 들어섰다.

온 병원집단이 손에 땀을 쥐고 수술실출입문유리를 바라보았다. 한순간의 실수가 더리로 잘라야 하는 절망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어려운 수술이었던 것이다.

한시간, 두시간... 드디어 수술실문이 열렸다. 온몸이 땀주머니가 된 박금복동무며 청진과 김창철, 담당 의사 리금일과 간호원 이례순동무들이 웃으며 나왔다.

『주원이 어머니! 다리를 펴셨습니다. 주원이다리가 펴졌단 말입니다.』

박금복동무를 비롯한 수술성원들이 그와 같은 날속에 기본은 마침내 수술방법을 대답해 받아들여 주원이의 원족다리를 펴는 성공했던 것이다. 이것은 주원이가 두발로 다시 대지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귀중한 첫걸음으로 되었다.

한쪽 무릎관절을 펴기 위해 치료를 했던 후 치료집단 앞에는 나머지 무릎관절을 펴는 것과 동시에 수술자리에 피부를 이식하여 하는 새로운 과정이 나섰다.

『의사선생님,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다리를 펴 수 있겠습니까?』

박금복동무는 믿음에 찬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언제나 병원의료원들의 치료사업을 힘있게 펼쳐주는 초급당비서였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누군가 수술실로 들어섰다. 병원초금당비서였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겠습니까?』

그때 방문이 열리며 누군가 수술실로 들어섰다. 병원초금당비서였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겠습니까?』

그때 방문이 열리며 누군가 수술실로 들어섰다. 병원초금당비서였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겠습니까?』

그때 방문이 열리며 누군가 수술실로 들어섰다. 병원초금당비서였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겠습니까?』

그때 방문이 열리며 누군가 수술실로 들어섰다. 병원초금당비서였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겠습니까?』

그때 방문이 열리며 누군가 수술실로 들어섰다. 병원초금당비서였다.

우리 인민의 행복의 노래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피진 뜻깊은 날이었다.

우리는 주원이가 대지를 마음껏 활보하게 되기까지 그에게 기울여진 사랑과 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다 담지는 못한다. 그러나 보약과 영양식품을 안고 매일같이 병원에 달려온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일군들과 청진시당의 일군들, 날마다 주원이를 찾아와 수업을 진행한 승리산중학교 교원들과 우리 주원이의 동무라고 하면서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의 일군들도 수술장으로 들어섰다.

우리 인민의 행복의 노래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피진 뜻깊은 날이었다.

우리는 주원이가 대지를 마음껏 활보하게 되기까지 그에게 기울여진 사랑과 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다 담지는 못한다. 그러나 보약과 영양식

품을 안고 매일같이 병원에 달려온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일군들과 청진시당의 일군들, 날마다 주원이를 찾아와 수업을 진행한 승리산중학교 교원들과 우리 주원이의 동무라고 하면서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의 일군들도 수술장으로 들어섰다.

우리 인민의 행복의 노래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피진 뜻깊은 날이었다.

우리는 주원이가 대지를 마음껏 활보하게 되기까지 그에게 기울여진 사랑과 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다 담지는 못한다. 그러나 보약과 영양식

품을 안고 매일같이 병원에 달려온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일군들과 청진시당의 일군들, 날마다 주원이를 찾아와 수업을 진행한 승리산중학교 교원들과 우리 주원이의 동무라고 하면서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의 일군들도 수술장으로 들어섰다.

우리 인민의 행복의 노래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피진 뜻깊은 날이었다.

우리 인민의 행복의 노래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피진 뜻깊은 날이었다.

우리 인민의 행복의 노래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피진 뜻깊은 날이었다.

우리 인민의 행복의 노래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피진 뜻깊은 날이었다.

우리 인민의 행복의 노래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피진 뜻깊은 날이었다.

우리 인민의 행복의 노래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피진 뜻깊은 날이었다.

우리 인민의 행복의 노래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피진 뜻깊은 날이었다.

우리 인민의 행복의 노래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피진 뜻깊은 날이었다.

우리 인민의 행복의 노래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피진 뜻깊은 날이었다.

우리 인민의 행복의 노래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피진 뜻깊은 날이었다.

우리 인민의 행복의 노래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피진 뜻깊은 날이었다.

우리 인민의 행복의 노래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피진 뜻깊은 날이었다.

우리 인민의 행복의 노래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피진 뜻깊은 날이었다.

우리 인민의 행복의 노래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피진 뜻깊은 날이었다.

우리 인민의 행복의 노래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피진 뜻깊은 날이었다.

우리 인민의 행복의 노래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피진 뜻깊은 날이었다.

우리 인민의 행복의 노래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피진 뜻깊은 날이었다.

우리 인민의 행복의 노래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피진 뜻깊은 날이었다.

조국의 대지를 마음껏 활보하라

『엄마, 난 영원히 걸을 수 없나?』

주원이는 때없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은 화였다. 창밖으로 세운 경계가 풍부한 그였지만 정경이와 허벅지가 거의 맞붙은 주원이와 같은 경우는 체육을 끊어야 했던 것이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누군가 수술실로 들어섰다. 병원초금당비서였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겠습니까?』

그때 방문이 열리며 누군가 수술실로 들어섰다. 병원초금당비서였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겠습니까?』

그때 방문이 열리며 누군가 수술실로 들어섰다. 병원초금당비서였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겠습니까?』

그때 방문이 열리며 누군가 수술실로 들어섰다. 병원초금당비서였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겠습니까?』

그때 방문이

